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6일 수요일 음 7월 29일 (6월)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22°C, 낮 최고 기온은 25-37°C로 예상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70% probability for rain, clear, and cloud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6:18) and sunset (04:28).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two days.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위험. Rows show UV index and other safety-related weather info.

월드뉴스

美 코로나 중심지 된 대학... 확진 8만여명

"캠퍼스 밖 2차 확산 우려"

미국 내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거리두기 수업하는 한 대학.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6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 결과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6000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8만 8000명을 넘겼으며 6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들은 가을 학기에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대면 수업을 시작한 대학도 늘어났다.

지난달 가을 학기가 시작하면서 수업이 재개되고 기숙사가 문을 열자 학교별로 수십명 수준이던 확진자가 수백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대학의 감염 확산이 지역 사회로도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생 인구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대학 도시' 203곳을 NYT가 점검한 결과 학생들이 8월 돌아오기 시작하자 절반 이상의 도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초기 정육 공장과 노인 요양원이던 바이어스 확산의 중심이 이제는 대학으로 옮겨갔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website address.

건강&생활



신윤경 불경신경과의학과의원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100명을 넘는 확진자 발생, 아직은 설레발에 가까운 백신 개발 그리고 0.07%의 항체생성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블루

불안하지만 한가해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컴퓨터, TV와 보낸다. 수업을 근무도 재택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말하면 무얼하랴.

동물, 즉 움직이는 존재인지라 이런 몸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해진다. 또한 우리의 몸과 정서는 수십만 년 동안 자연과 사람을 직접 접하는 것에 맞춰 적응된 체계이므로 SNS나 zoom을 통한 간접 소통 역시 이 적응에 균형을 흐른다.

갑게 위치해 정서변화의 효과가 빠른 곳이다.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 기분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열린마당

가족 모두 안전한 추석 연휴



강성철 한림119센터장

올 상반기 제주에서는 3분에 한번꼴로 119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사고의 경우 1716건이 신고돼 작년 상반기 1191건보다 약 44% 늘었다.

다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화재초기 인지 및 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어도 화재초기에 화재진압에 나서거나 화재 경보를 통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 킬레이트제 활용



공영현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짙은 가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토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집약적인 농업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시설농업이 발전해 왔다. 시설재배는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기출하, 기상재해 회피, 시기조절, 생산량 증대 등 효과를 가져왔다.

용되고 있다. 킬레이트제는 집계의 발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서 양분이온을 집게발로 감싸줘 토양 속에 불용화 된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미량요소 등의 성분과 결합해 작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 뿌리가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

Advertisement for Cheilsa (제일사) featuring a price list for various products and a map of the location in Jeju City.

Advertisement for Boraflower (꽃보라) featuring a list of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to of the store.